



# 조경수목산책(Ⅱ XⅥ)

- 배롱나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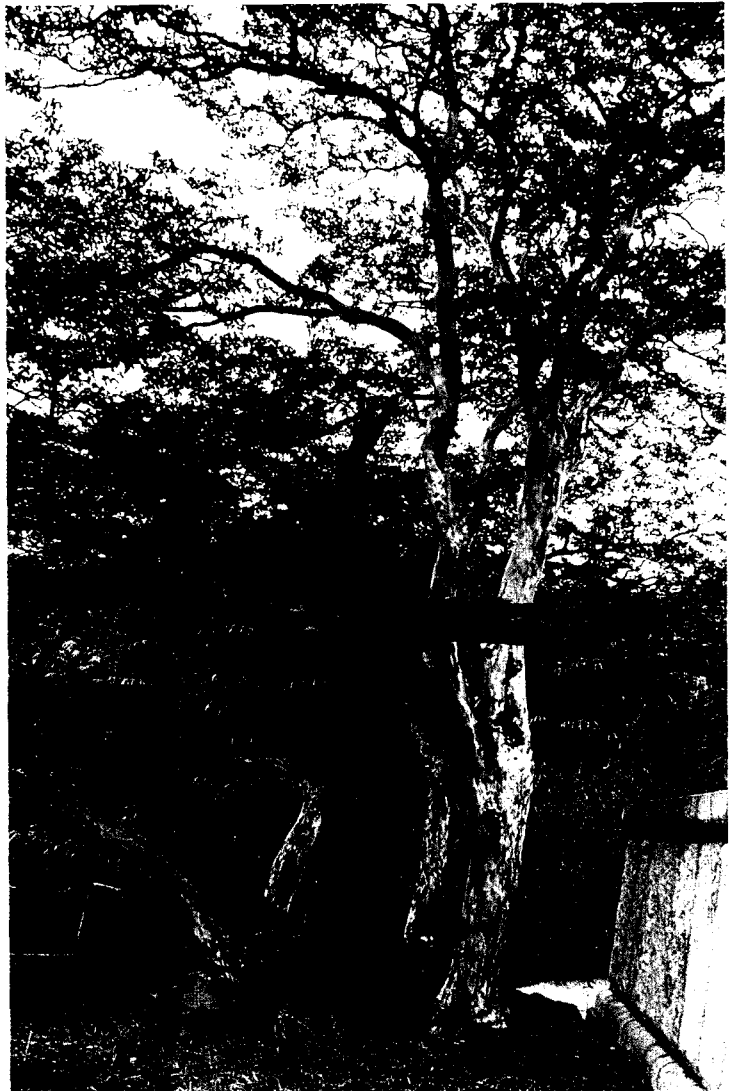


임 경 빈  
농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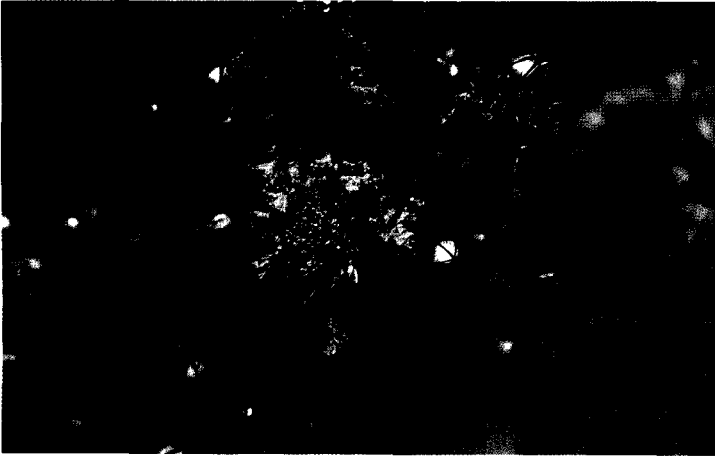
## 1. 명칭

배롱나무는 중국 남쪽 원산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겠지만 내가 살던 시골 고향 마을에는 배롱나무는 없었다. 십리를 넘는 길을 걸어 초등학교(보통학교)를 다녔지만 그 길가 마을에서나 초등학교가 있는 큰 마을에서나 나는 배롱나무의 꽃을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이 나무가 그만큼 흔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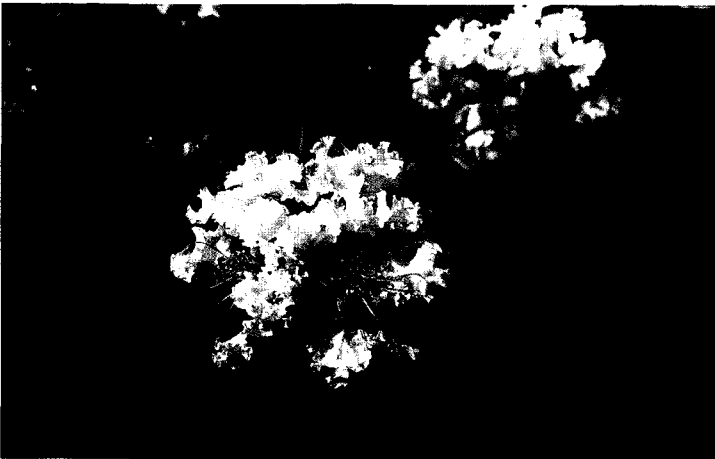
나는 약 15년 전에 나무백과 속편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배롱나무란 이름을 쓰지 않고 나무백일홍이란 말을 썼다. 그 뒤 어느 식물학자가 나에게 「알만한 사람이 배롱나무를 나무백일홍이니 또는 목백일홍이니 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기에



▲부산진의 배롱나무 1985. 10. 5



▲붉은 꽃 배롱나무 1998. 8. 31



▲흰 꽃 배롱나무 1998. 8. 31

그때부터 나는 당장 배롱나무란 이름을 우선적으로 쓰기로 했다. 이 나무가 중국에서 도입된 때 누가 처음 배롱나무라고 했는지 나는 모르고 있고 그때 배롱이 무엇을 뜻하기에 그러한 이름을 붙였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나 이유없이 배롱나무로 호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첫째로 배롱이 한문자에서 온 것이 아닌 것 같고 목백일홍(木百日紅)은 너무나 한

문자명을 그대로 음독(音讀)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에도 아명(兒名)이 있고 성인명(成人名)이 있듯이 배롱나무도 별명을 가지는 것이 나쁠 것 없고 더욱이 이 나무가 중국나무이고 보면 중국의 원명인 자미화(紫薇花)나 파양수(怕痒樹)로 부르는 것도 나쁠 것 없다고 본다.

일본 사람들은 이 나무를 「사루스베리(猿滑)」라고 하는

데 뜻은 이 나무의 껍질이 매우 매끈해서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오르다가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럴싸하게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배롱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교목이고 수고는 5m쯤에 이르나 큰 나무로는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중부이남에 관상용으로 심고 있다. 인도와 호주에도 분포하고 있다한다. 나무줄기는 땅 표면 가까이부터 잘 갈라지고 줄기가 외대로 되는 일은 드물다.

줄기껍질이 너무 반들반들해서 손으로 간지럽혀 주면 나무가 움직인다는 뜻에서 파양수라는 중국명이 주어졌다고 하나 이것은 좀 과장된 말이고 간지럼을 타서 떴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다. 그러나 이 나무는 나무줄기의 상태를 보고 잘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껍질이 얇다보니 추운 북쪽 지방에서는 자랄 수가 없을 것이다. 옷없이 살아가는 배롱나무이고 보니 이 나무가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모든 나무가 더위에 허덕이는데 배롱나무만은 한 여름 백날 동안 꽃을 달고 있으니 그 생리를 뽐낸다. 그래서 목백일홍이란 이름은 적격하다고 할 수 있다.

## 2 나무의 미의 대상

나무를 관상적으로 내다볼 때 그 아름다움의 대상이 몇

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 꽃이 아름다움의 높은 가치로 평가 되는 나무로는 배롱나무, 벗나무, 복숭아나무, 무궁화, 개나리, 진달래, 꽃사과나무, 병꽃나무, 살구나무 등을 쉽게 들 수 있다. 말하자면 꽃을 그들 나무의 가장 화려한 부분으로 말할 수 있다.

잎이 인간의 감상 대상이 되는 것에는 히말라야시이더, 소나무, 향나무, 팽팡나무, 회양목, 은행나무 등 많다. 꽃과 잎을 함께 하는 것에 동백나무, 산딸나무, 수국, 자귀나무 등이 있겠다.

여기에서 배롱나무는 무엇보다도 꽃으로 한 몫을 한다. 배

롱나무에 꽃이 볼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나무의 가치는 뚝 떨어진다. 배롱나무에는 붉은 꽃, 흰 꽃 등을 다는 종류가 있다. 6개로 된 꽃잎이 우굴쭈굴 주름살이 많은 이 나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백 날 동안 오래 꽃을 다는 배롱나무의 왕성한 생리를 비웃어 보는 소나무의 높은 격조가 있는 것은 흥미롭다.

花無十日紅 화무십일홍  
爾獨百日紅 이독백일홍  
莫誇百日紅 막과백일홍  
岩上千年松 암상천년송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꽃이

아름답다하지만 열흘을 가지 못하는 법인데 배롱나무 너는 어찌하여 백 날을 붉게 피느냐 그 백날 긴 것을 뽐내지 말라. 저곳 바위위에는 천년의 푸름을 간직하는 소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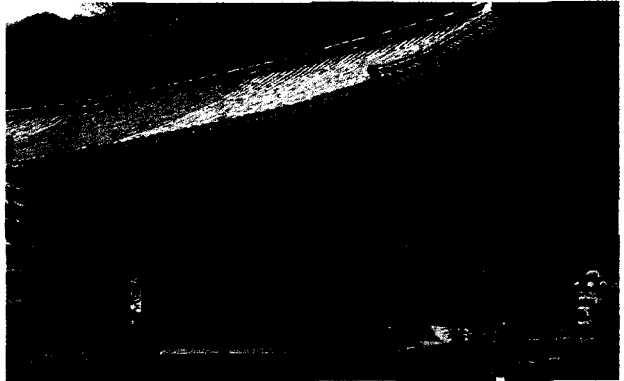
내가 지난 여름 배를 타고 남해를 돌아볼 때 누군가가 촛대처럼 높다랗게 솟아 오른 바위섬 위에 한 그루 소나무가 서 있는 것을 가리키며 저 소나무의 이름은 천년송이고 해가 가도 나무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 소나무를 천년송으로 부르게 되었다 하는데 이곳 시와 관련시키면서 나는 그 소나무를 다시 쳐다보



① 오죽헌의 배롱나무 1994. 3. 12

② 선운사의 배롱나무 1991. 9

③ 알칸사스주 몽고메리시의 배롱나무 1985. 8.



②



③

곤 했다. 그러나 꽃으로 말할 때에는 무궁화도 있으나 배롱나무의 긴 화기에는 칭찬을 보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꽃을 보기 위해서 배롱나무를 심는다.

그 색깔이 어퍼하던 크기가 어퍼하던 인간의 눈에 잘 띠던 안 띠던 꽃은 식물체의 부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나 그 중에서 배롱나무는 꽃으로 큰 목소리를 낼 만하다.

### 3. 꽃의 생물학적 해석

나의 은사 우에끼(植木)교수는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수원 고등농

림학교 교수로서 시간을 보냈다. 그의 꽃에 대한 구조학적 설명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강론을 폈다.

꽃은 꽃잎, 꽃받침, 수술, 암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잎이 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잎에 대해서 이러한 잎을 고출엽(高出葉)으로 말한다. 꽃이 그 아래쪽 잎보다는 위치가 위에 있다는 데서 고출엽이란 이름을 얻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나무란 것은 뿌리, 줄기, 그리고 잎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열매라는 것도 잎이 변형해서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강의였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들기도 했다. 요컨대 꽃의 부분부분은 잎의 변형이라는 데 있다.

### 4. 꽃의 원성(原性)

인간은 식물의 꽃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쏟아왔다. 시와 문장 그리고 그림 또 노래의 소재로 꽃은 비상한 문화적 가치의 대상이 되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 사례를 모두 열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다. 배롱나무가 중국산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일이라고 믿어진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배롱나무의 노거목으로 추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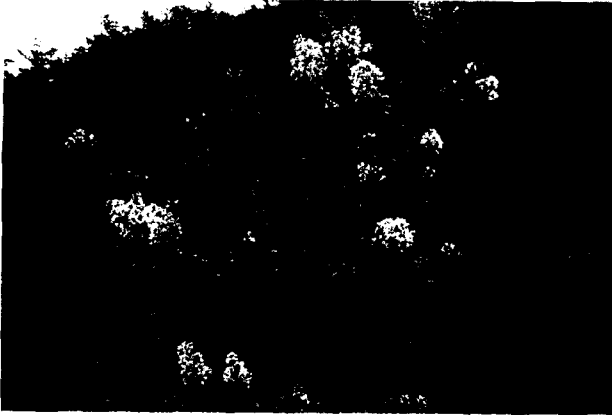
그 두드러진 보기는 강릉 오죽헌에 있는 배롱나무이다. 말로는 이율곡선생께서 생전에 이 나무를 보았다고 하니 배롱



◀금산사의 배롱나무  
1986. 11. 3

▼강진 백련사의 배롱나무 1990. 12. 20





▲일본 후고갱 자연공원의 배롱나무 1974. 9. 10

나무의 도입은 오랜 지난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나무를 서당의 뜰에 흔히 심었다고 하는데 글을 읊는 한여름의 더위를 배롱나무꽃은 식혀주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이 나무의 꽃을 바라보면서 학당의 학생들은 위로를 얻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했을 것이다. 여기에 꽃이 자아내는 격려의 힘을 찾아낼 수 있다. 꽃은 웃어도 웃음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꽃이 지니는 높은 생활율(生活律)이라고 할 수 있다. 꽃 그것은 아름다우나 소란스러움은 없다. 벚꽃이 구름처럼 피어 날 때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교양이 낮은 인간의 발상이지 꽃의 원성(原性)은 아니고 또 꽃이 바라는 것도 아니다. 꽃은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다. 예전 학당의 학생들은 배롱나무의 꽃은 물론 모든 꽃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자세를 훈련받았을 거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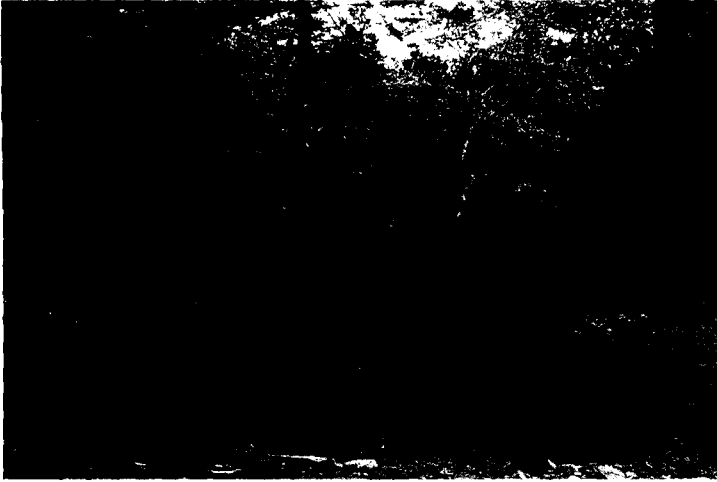
▶송광사의 배롱나무 1984. 9. 20

다. 그러기에 훌륭한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본다. 꽃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안식은 그 사람의 교양과 학식 그리고 행동거지의 됴됨이에 관련되었다고 본다.

진달래꽃 피는 동산에서 부녀자들이 가진 화전놀이는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꽃에 시름을 묻어버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생기를 얻어내는 때로는 또 공동체의 평화적이며 생산성의 단결을 꾀하는 아름다운 행사였다. 그것은 화려하던가 가벼운 잔치분위기에 흐르는 것이 아니었고 꽃발을 통한 그윽한 자연으로서 몰입에 있었다.

## 5. 꽃과 시(詩)

꽃은 피우는 시간이 대체로 짧기는 하지만 그 가치의 농도는 매우 짙어서 가중(加重)적으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소식(蘇軾)은 그의 시에 있어서 꽃피는 시간의 길이의 짙은 농도와 동시에 꽃의 고요함을 읊었다. 꽃은 방정맞은 진열품이 아니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잔잔하게 가라앉은 철학같은 것을 담고 있다. 소식은 그것을 시로 묘사하고 있다. 위대한 인간성을 지닌 뛰어난 시인의 심성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보았으면



▲선암사 민사담의  
배롱나무 1984. 9.  
21



▶남제주 복자수도  
원의 배롱나무  
1998. 10. 23

하지만 마음대로 되는 노릇도  
아니다.

春宵一刻直千金 춘소일각직천금  
花有清香月有陰 화유청향월유음  
歌管樓台聲寂寂 가관루대성적적  
鞦韆院落夜沈沈 추천원락야침침

봄 저녁(春宵)의 짧은 시간  
은 천금의 값어치를 가진 것인  
데 꽃은 맑은 향기를 내고 달  
은 봄기운으로 흐리고 있다. 이  
얼마나 황홀한 분위기이나. 노  
래소리와 음악의 가락도 쉬고  
고요한 적막에 쌓여 있다. 꽃과  
달은 이처럼 고요에 어울리고

있다. 그네줄 드리운 뜰 안의  
밤은 깊은 분위기로 가라앉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마음 속으  
로 구상하고 연출해서 그 안에  
우리 스스로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 문자와 자구의 해석에 그  
쳐서는 무언가 부족함이 크다.

꽃은 가장 화려한 식물체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종  
에 따라 꽃의 구조에 차이가  
있으나 꽃의 주역은 꽃잎이다.  
수술도 암술도 꽃잎의 아름다  
움에는 따라 갈수 없다. 그런데  
꽃잎은 암술과 수술의 기능을  
돕는 보조적 기관이다. 핵심을

돕는 주변기관이 더 찬란하다  
는 것은 꽃이라는 생식기관의  
화장술 같기도 하다. 이러한 생  
산적이고 아름다운 꽃을 인간  
이 바라보고 슬픔에 잠기고 눈  
물을 흘리는 것은 역시 꽃의  
생리의 바탕이 고요에 있다가  
데 있을 것이다. 얼마 안 가서  
꽃의 기능이 완수되면 미련 없  
이 그 아름다움을 땅으로 떨어  
뜨려 미련 없이 썩어 가는 상  
황의 급한 변화에 슬픔을 발견  
하는 것으로 본다. 두보의 춘망  
(春望)의 시의 일부분에서 이  
것을 찾을 수 있다.

國破山河在 국파산하재  
城春草木深 성춘초목심  
感時花淺淚 감시화천루  
恨別鳥濺心 한별조경심

나라는 망해도 산과 시내는  
그대로 있다.

봄날 성에는 초목이 우거지  
고

때로 느껴서 꽃에도 눈물을  
뿌리고

한스러운 이별에 새를 보고  
도 놀란다.

인간의 처지가 좋을 때는 꽃  
은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슬픔에  
인연을 불여보게 된다. 전쟁으  
로 나라가 쑥밭으로 되고 포로  
의 신세가 된 두보의 눈에  
꽃은 한스러움으로 보였다. 꽃  
에서 위로를 얻었다고나 할까.

한 여름의 생리를 자랑하는 배롱나무의 꽃이 그간 우리에게 어떠한 분위기를 던져준 것일까. 심어진 곳이 사원이나 서당 주변이고 보면 깨끗하고 고요를 상징하였을 것이고 한 여름의 아름다움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생각한다. 줄기가 지나 칠 정도로 깨끗한 것은 신(神)의 주변에서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꽃이 절품이 되는 여름에 신불(神佛)에 바쳐지는 공양물로서의 구실을 했을 것이다. 이 꽃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때그때의 처지에 따라서 다른 상황의 주체가 되었을 것이나 어디까지나 본 바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 6. 내가 본 배롱나무

큰 배롱나무로서 내가 본 것은 그 수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168호의 나무는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이곳 배롱나무는 약 800년 전 고려 중엽 때 동래 정씨 정문도공(鄭文道公)의 묘소앞에 심어진 것이라 한다. 묘소의 좌우 양쪽에 자라고 있는데 키는 약 6m~7m 쯤으로 추정되었고 가슴높이 줄기둘레는 60~70cm 쯤으로 보았다. 오래된 나무라 줄기의 몇 개는 고사하고 있었다. 오른쪽 나무는 살아있는 줄기 4개, 고사한

줄기 2개, 왼쪽 나무는 살아있는 줄기 3개, 고사한 줄기 3개였다. 이것은 이 나무가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이력의 모습이다. 묘 안의 영혼을 달래서 고요히 잠들게 하는 나무의 정기(精氣)를 엿볼 수 있었다.

전북 고창 선운사의 대웅전 뜰 돌계단 위에 서 있는 두 그루의 배롱나무는 명물이다. 알맞게 틀을 잡은 수형에 때가 오면 지친으로 꽃을 단다. 대웅전에 바치는 신앙의 촛불처럼 이 나무의 꽃은 찬란한 빛을 발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찰의 각처에는 배롱나무가 흔히 배식되어 있다.

내가 전북 금산사를 찾은 적은 여러 번이다. 금산사에 갈 때마다 나의 시선을 끈 것은 은행나무 노거목과 산사나무와 배롱나무였다. 은행나무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산사나무의 열매는 나무를 장식하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보석처럼 보였다. 금산사의 산사나무는 명물 중의 명물이다. 이에 더해서 금산사에 가면 배롱나무를 봐야 한다. 유난히도 매끈한 줄기에 감탄하게 된다. 이 나무도 불법(佛法)에 바쳐진 공양물로 이해된다. 나는 금산사의 배롱나무를 볼 때 육불(六不)을 마음에 떠올리게 했다. 삶도 없는 것이요(不生), 멸함도 없는 것이요(不滅), 더럽다는 것도 없고(不垢),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다는 것도 없다(不淨), 불어

나는 것도 없고(不增), 그렇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없다(不減), 있다는 것도 없고, 없다는 것도 없다. 나는 이 내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뜻을 새겨서 좋아해 보고 즐겨본다. 이러한 진리를 나는 금산사의 배롱나무와 함께 어울려 보는 것이다. 그러한 힘이 있기에 배롱나무를 즐겨 절간에 심은 줄로 안다.

강진 백련사의 배롱나무, 송광사, 선암사, 남제주 복자수도원의 배롱나무 모두 자랑할 만한 것들이다. 이처럼 절간에 배롱나무의 노거목이 많으나 강릉 오죽헌의 배롱나무는 그 수형의 미와 줄기의 깨끗함에 있어서 빼어나고 있다. 들로 난간을 쳐서 이 나무의 보호가 소중함을 알려준다. 울곡선생께서 이 나무를 보고 느낌 감회가 어떠했겠는가 하고 회상에 잠겨본다. 위대한 학자의 글동무가 되었던 이 나무의 가치를 다시 되새김질 해 본다.

배롱나무는 꽃나무의 대명사에 틀림없다. 그 꽃은 고요하나 힘에 차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랑스러운 곳에 배롱나무를 심었다.